

상상력으로 되살린 도토새와 곤충세상

사진과 조각으로 작업하는 해리 칼리오





Riviere des Anguilles #3, Mauritius, 2001

| The Dodo & Mauritius Island |

해리 칼리오(Harri Kallio)는 자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작품에 반영한다. 상상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는 그의 미적 감각에 의해 시각미술로 재현된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출생한 그는 헬싱키 미술에서 순수미술을 공부한 후 뉴욕으로 건너와 전문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 '도도와 모리셔스섬 : 상상의 만남' 시리즈를 통해 그는 이미 300년 전에 멸종된 도도새를 조각으로 제작한 후 그들의 실제 서식지였던 모리셔스섬(Mauritius : 인도양 남서부, 마다가스카르섬 동쪽에 있는 섬나라)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그는 수많은 자료조사를 거친 후 상상력을 동원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도도새를 그림이 가진 고유한 미적 감각을 통해 다시 사진 속에서 부활시켰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그의 상상의 세계는 도도 시리즈 이후 제작된 그의 프로젝트 'Innerscape'와 'Lepidoptera Portrait' 시리즈에서도 펼쳐지며 미국과 유럽의 여러 미술 기관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2007그린아트페스티벌의 메인전시인 '움직이다'에 도도새 시리즈 어섯작품을 가지고 참가하는 그는 전시에 참가하는 해외 작가들 대표로 한국을 방문해 5월4일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촬영하는 사진들과는 달리 작가의 상상과 창의력이 반영된 그의 작품과 상상의 세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글 | 태해상(경기/재미극, 디자인) | 박정방(기자)



Riviere des Anguilles #6, Mauritius, 2002



Riviere des Anguilles #1, Mauritius, 2001

먼저 한국의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2007Green Art Festival에 참가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전문 사진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주로 동물, 곤충 등 생물에 관련된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가?

내 직업이 우선 그린아트페스티벌에 전시돼 매우 들뜨고 흥분된다. 평소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고, 지구에서 인간들이 갖는 영향력의 규모와 그 개입에 비해 자연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열마틴 스테판 호킹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그는 지구의 환경문제를 특이한 관점에서 설명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어 지구 밖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더이상 푸른 빛 또는 모습을 못보게 될 것이고 또한 밤에는 한가해 불이 켜져 저 멀리 우주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자원이 바닥이 날 때까지 인간의 욕구는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개발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인간 문화에의 접근방법을 동물과 같은 다른 생물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장소의 시스템에 맞게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린아트페스티벌에 출품되는 8점은 모두 '도도와 모리셔스섬 : 상상적 만남' 시리즈 작품이다. 이미 멸종된 동물을 작가의 상상력을 이용해 사진으로 부활시킨 점이 흥미롭다. 작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과 작업과정이 궁금하다. 도도새의 모형을 직접 제작했나?

어린시절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에 푹 빠져 지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도도새에 대해 그다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어른이 된 뒤 다시 한번 그 책을 읽게 되었을 때 도도새가 매우 훌륭한 캐릭터라는 것을 알게 됐다. 도도새를 처음 봤을 때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칠면조처럼 생긴 도도새는 큰 양치에 날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새가 300년 전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도도새 모형을 만들어 그들이 실제 살았던 곳에 갖다놓고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미 멸종된 도도새를 그들이 살았던 모리셔스섬을 배경으로 촬영하기 위해 나는 사진으로 과거를 재현해야 했다. '도도와 모리셔스섬 : 상상적 만남' 시리즈는 이처럼 멸종동물인 도도새에 대한 사진적인 고찰이자 재현이다. 광범위하게 조사한 자료에 따라 나는 실제 크기의 도도새 모형을 만들었다. 프로젝트의 절정은 도도새 모형을 그들의 자연서식지였던 모리셔스섬에서 촬영할 때였다. 나는 실제 도도새들이 매일 생활하던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 작업은 관객과 과거 모리셔스섬에 실존했던 도도새들의 상상적 만남을 시각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또한 나는 개척자들이 이 섬에 도착해서 도도새들과 만났던 순간을 재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새들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재창조하려고 한 것 아니다. 다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도도새가 모리셔스섬에 존재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 새의 존재를 신화적이며 또한 사실적 캐릭터로 재현하고 싶었다. 도도새의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미술과 역사, 해부학 자료를 참고했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도도새들은 여전히 불충분해,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그 모양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Combo Nature Preserve #3, Mauritius 2004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대상으로 재현해 사진작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다. 작업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언제인가?

작업의 규모가 크다보니 기간도 매우 길어졌다. 하지만 처음 스튜디오에서 도도새 조각을 완성시켰을 때와 모리셔스섬에 도착해 도도새를 가까이 놓고 섬을 배경으로 보았을 때 맞보았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작업을 진행하던 당시 보고 느꼈던 모리셔스섬과 본인의 자료 조사에 의해 상상했던 17세기의 모리셔스섬과 차이가 있었다면?

모리셔스섬은 1860제곱 킬로미터 면적(제주도 면적과 비슷함)의 섬으로 120만 인구가 산다. 300년 전 처음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7세기 모리셔스섬 풍경은 도도새처럼 소멸했다. 섬의 70%는 그곳 주민들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사탕수수밭으로 변했고 나머지는 모두 도시화되었다. 단 1%의 지역만이 아직도 숲으로 남아 있는 등 섬의 풍경은 완전히 변했다. 토속 식물들이 없어지고 대신 수입된 다른 식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등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거나 거의 남아 있지 않다.



Gris #2, Mauritius 2001



Lion Mountain, Mauritius



| Lepidoptera Portraits |

본인의 기대만큼 좋은 작업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혹시 도저히 재현이 불가능했던 부분은 없었나?

나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종류의 사진작업을 시도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품의 결과가 꼭 어떤 모습으로 나오지 안 된다는 선입견이나 기대 없이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작업에 임했다. 단 도도새 조각과 어울리는 300년 전 섬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데 진땀났다. 작업결과는 생각했던 대로 다양하면서도 재미있는 모습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언제 처음 사진을 시작했나? 사진을 시작했던 초기부터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진작업을 시도해 왔나?

18살에 처음 사진을 시작했다. 항상 미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사진은 이런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대체라고 생각했다. 사진이 회화나 조각과 달리 렌즈 앞에 놓인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항상 작업에서 강한 시각적 효과와 복합적인 컨셉을 노리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조각과 사진의 조합이 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임을 발견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고 디자인하는 것은 내 작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핀란드 출신으로 헬싱키 미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언제 뉴욕으로 왔으며 뉴욕이 갖는 장점이 있다면?

헬싱키에서 미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 2001년 예술가로서 전문성을 살리고 또한 새로운 곳에서 삶을 경험하기 위해 2001년 뉴욕으로 건너왔다. 요즘은 세계가 단일화 돼 전시와 예술가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점차 뉴욕이나 다른 큰 도시들처럼 중심도시가 아닌 곳에서부터 새로운 예술이 시작되는 것 같다. 뉴욕이 꼭 훌륭한 아티스트 또는 어떤 큰 인물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타낸다. 사진이란 아주 작은 대상을 확대시켜 보일 수 있는 도구이다. 사진에서 나비와 나방들의 얼굴은 실물보다 크게 보인다. 이런 연출은 관객들에게 실제의 생활에서 볼 수 없는 표정들을 볼 수 있게 만든다. 엔트로피물질중이던 개념은 인간의 감정을 동물의 행동에 비추는 의미를 갖는데, 이것처럼 동물의 표현을 인간의 감정표현으로 빗대어 해석한 것이 작업이다. 이 초상사진에서 비추어지는 얼굴 표정과 제스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관객의 몫이다.

주제와의 교감이란 대상이 사람이건 나비이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인간을 주제로 한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나는 대상들에 대한 영감과 흥미를 통해 이미지를 창작해낸다.

자신의 작업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속한다고 생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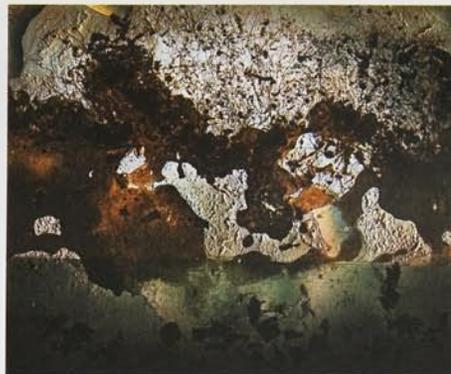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큐레이터와 갤러리 측에 판단을 하도록 맡긴다. 내가 생각하는 아티스트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하고 작업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 아이디어를 따르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가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테크닉에 대한 모든 지식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어쩌면 사진이란 굉장히 융통성 없는 도구인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진이란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진은 기술적으로 다양한 매체이지만, 자신의 아이디어와 컨셉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계획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가? 있다면 다음 주제로 생물과 관련된 것인가?

아티스트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한 평생을 아티스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Innerscape' 시리즈 작업을 마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심대상을 찾아 조각으로 제작해 사진



과 병행시키는 작업을 계속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대형 나비조각상을 만들어서 '인시류(나비) 포트레이트'를 만들고 싶다. 이 또한 조각과 사진의 혼합작이 될 것이다.

인터뷰에 응해줘 고맙다. 월간사진과 그린아트페스티벌을 통해 한국에 데뷔하게 된 소감이 어떤지? 한국 관객들에게 내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매우 흥분되고 기쁘다. 또한 한국으로 초대받게 된 것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빨리 한국에 가서 전시를 보고 싶다. □MP

| Innerscapes |

HARRI KALLIO



| EDUCATION |

2002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Finland, MFA Photography.
1996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Finland, BFA Photography.
1998-99 Oxford Brookes University, School of Art, Publishing and Music, Oxford England

| SOLO EXHIBITIONS |

2007 Columbus Museum of Art, Ohio USA
2006 Bonni Benrubi Gallery, NYC
2003 Natural History Museum, Helsinki Finland
2004 Institute of Systematic Zo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 Jena, Germany

| GROUP EXHIBITIONS |

2007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Lisbon, Portugal, "Photography and Engineering 1846-2006"
2007 Aperture Gallery NYC
2007 Bonni Benrubi Gallery, NYC
2007 Museum of Fine Arts, Santa Fe, New Mexico, "Art & Artifice of Science"
2007 Ateneum, Finnish National Gallery, Helsinki
2006 FotoFest 2006, Houston, Texas, USA
2006 FotoFinlandia Exhibition, Victor Barsokovits Center, Kuopio, Finland
2006 "Why look at animals" George Eastman House, NY, USA
2006 ICP,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Triennial, NYC
2006 FotoFinlandia Exhibition, Helsinki Finland
2005 "Obiettivo Uomo Ambiente 2005" Biennial, Viterbo, Italy
2004 Design Center, Stuttgart, Germany
2003 "Gruner + Jahr", Hamburg, Germany
2003 Galleria Uusitalo, Helsinki Finland
2003 "Forum für Fotografie und Kunst" Cologne, Germany
2000 Profounders Galleria, Helsinki
1999 Galleria Hippolyte, Helsinki
1997 Galleria Atski, Helsinki
1996 Titanic Galleria, Turku, Finland

| EVENTS AND LECTURES |

2007 Josef Albers Foundation Residency
2006 George Eastman House, Lecture(Dodo and Mauritius Island)
2006 Aperture Limited Editions Program
2006 Aperture Magazine(feature) May 2006
2006 State "Artist of the month", February 2006
2006 Aperture Foundation Lecture(Dodo and Mauritius Island)
2005 Review Santa Fe

| UPCOMING EXHIBITIONS AND EVENTS |

2007 Natural World Museum, Exhibition
2007 Brussels, Belgium "Photography and Engineering 1846-2006"

| AWARDS/GRANTS |

2006 FotoFinlandia Prize Helsinki, Finland
2006 Finnish Cultural Foundation Grant
2004 Arts Council of Finland Grant
2004 The European Publishers Award for Photography
2003 BFF Promotion Award 2003
2003 Finnish Cultural Foundation Grant
2002 Finnish Cultural Foundation Grant
2000 Arts Council of Finland Grant

| PUBLICATIONS |

2006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ICP review)
2006 Aperture Magazine(feature) May 2006
2006 Universum Magazin(Austria)
2006 Time Out, New York February 2-8 issue NO-540
2006 FotoFest 2006, Catalogue
2006 Helsinki Sanomat, Foto Finlandia feature, February 10th
2005 Le Monde #48, January-05 "Fantasie ornithologique, le Dodo oseu cada"
2004 EL PAIS SEMANAL, Numero 1467, "El pajar resucitado"
2004 "The Dodo and Mauritius Island, Imaginary Encounters" Actes Sud(France), Apeiron(Greece), Dewi Lewis Publishing(UK), Edition Braus(Germany), Lunberg Editores(Spain), Pelti Associati(Italy)
2003 The 15th BFF promotion award catalogue
2003 Finnish Photography 2003, Musta Taide, Helsinki